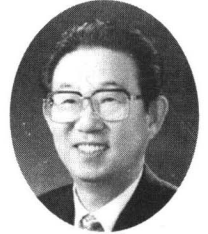


## 産業醫學의 아버지 Bernardino Ramazzini(1633~1714)



부산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김 돈 군

Ramazzini는 아버지 발로트르 메오 라마찌니와 어머니인 카테리나 웨텔소니 사이에서 1633년 10월 4일 화요일 17시에 태어나 Carpi 사원에서 부목사 피에피에트로 조반니 보지오로 부터 세례를 받았다. Carpi는 Modena에서 10 mile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로 밀집모자 제조를 주로 하는 수공업 도시였다.

Parana대학에서 철학과 의학 공부를 하여 1659년(26세)에 의사가 되어 로마에서 1년간 개업을 위한 수련을 마치고 Marta와 Canino란 소도시의 공의로 개업하였으나 심한 Malaria와 황달로 인해 고향인 Carpi로 돌아와 건강을 회복한 후 의사로서의 활동을 다시 개시하여 개업으로 성공하여 유명인사가 되

었다. 1671년 신설된 Modena대학 의과대학의 이론의(Theory of medicine)의 교수로 임명되어 Carpi에서 Modena로 옮겨 30년간 Modena대학에 봉직하였다. 1690년 Modena에서 유행한 Lahyrism(에집트 콩 중독증)과 Malaria, Scabies, Typhus 등 전염성 질환의 유행으로 히포크라테스형 역학조사 연구로 유명한 역학자로 알려져 있었으나 여가의 시간을 활용하여 여러 공장이나 작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작업으로 인하여 이환된 직업성 질환을 진찰하고 치료하면서 그 질병의 원인과 예방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Ramazzini가 이렇게 직업성 질환에 대하여 흥미를 갖게 된 것은 그의 人間愛(인간애)의 發

露(발로)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Ramazzini가 살고 있던 집은 古屋(고옥)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길 따라 깊은 하수구가 있는데 여기에 쌓인 분뇨나 가정 오수의 퇴적물을 3년마다 걷어내고 있었다. 하루는 Ramazzini가 자기집 근처의 하수구에서 청소부가 천천히 쉬어가면서 할 수 있는 퇴적물 浚渫(준설) 작업을 숨 쉴 사이도 없이 아주 빠르고 힘들게 작업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호기심이 생긴 Ramazzini는 청소부에게 그렇게 서둘러 작업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그때 하수구 안에서 일하고 있던 청소부의 대답은 “이런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수구 안에 4시간 이상 있으면 어떻게 되는

지 알 리가 없다. 눈이 멀어 버린다. 나의 동료들 중에는 이미 장님이 되어 로마 시내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되어 버린 사람도 있다.”

여기에서 충격을 받은 Ramazzini는 환자를 바르게 진단하고 치료하려는 인간애가 넘치는 진실된 의사라면 환자가 일하고 있는 곳이 불결하고 유해한 곳이라 하더라도 찾아가서 직접 그 환경을 관찰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체면에 손상을 주는 일도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질병을 진단한다는 것은 일반 환자를 진단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진리를 터득하게 된 것이다. 그 후부터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직접 작업장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진단하면서 작업환경을 관찰하고 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이 대학에서 새롭게 개설된 ‘직업인의 질병’이란 강좌 내용이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당시 직업병 전문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 명성이 67세란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태리의 명문 대학인 Padua대학의 교수로 초빙 받게 된 계기가 된 것이라

하겠다.

Ramazzini는 70세에 ‘망막 동맥 경화증’으로 양안 시력이 감퇴되어 읽고 쓰는 것이 손자의 도움이 있어야만 겨우 가능할 정도였지만 학생들의 강의에는 정열을 다하여 열성적이었고 81회 생일에도 학생들의 오후 강의를 준비하던 중 뇌졸중이 발작하여 12시간 후에 그의 일생을 마쳤다(1714). Padua 근처에 있는 St. Helena Nuns 교회에 매장되었으나 그의 묘지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

평상시 자기 일에 열중하고 편견이 없는 성격의 소유자였고 조금 여윈편이긴 하지만 얼굴에는 윤기가 흐르고 머리칼은 검은색의 곱슬머리였지만 늙어가면서 반백이 되어 멋진 가발을 쓰고 다니기도 하였다 한다. 그의 아름다운 검은 눈동자는 매우 매력적이었고 걸음이 빠른편이어서 그에게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화를 잘내지 않는 성격이지만 학문적인 토론에 있어서 올바른 이론을 지적할 때는 거리낌 없이 강력하게 주장하였다고 한다. 가정일에는 무관심한 편이었지만 모든 일에 정열적이고 예리한 관찰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의사가 알고 있

어야 할 정도의 그리스어에 능통하였고 기억력은 타인의 추종을 불허 할 정도로 매우 훌륭하였다고 한다. 옷단장은 항상 맵시있게 하였고 chess game을 즐겨 하였으며 목이 마르거나 잠이 잘 오지 않을 때는 식초와 물로 만들어진 Posca를 즐겨 마셨다고 한다.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소심하고 흥분하는 편이었고 석학들과의 우정을 중요시 하여 언제나 경의와 애정으로 대하였기 때문에 사망할 때까지 그들로부터 변함 없는 존경을 받았다고 하며 직업병 뿐만 아니라 법의학에도 흥미가 있어 이 분야의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 ‘De Morbis Artificum Diatriba(직업인의 질병)’

Padua대학에 초빙 받은 1700년에 Modena대학에서 강의한 ‘직업인의 질병’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산업 의학에 관한 최초의 광범위한 논문을 발간하였다. 이것은 광부, 도금사, 조산원, 약종상, 가수, 화가, 군인, 방직공 등 42종 이상의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질병을 조사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론 Modena에는 광산이 없

었지만 광부의 질환을 기술하기 위해서 히포크라테스 이후의 직업성 질환에 관한 여러 문헌과 그리고 이 문헌 저자들 중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의견을 참고로 인용 하였다고 한다. 1713년에 간행된 제2판은 시력장애가 있음에도 개의치 않고 비서인 손자와 같이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Modena에 있는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12종의 직업성 질환을 조사하여 추가하고 있다. 결국 이 저서는 직업병에 대해서 당시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종합 集大成(집대성)한 것으로 19세기까지 공중 보건 분야 연구를 위한 기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산업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도 훌륭한 참고 자료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하겠다. 이 저서에서 참고로 한 문헌들은 앞서서도 언급한바 있지만 의학적인 것은 물론 철학, 문학, 박물학, 예술, 법률 등에 이르기까지 직업에 관계되는 모든 내용을 광범위하게 인용하고 있다.

라틴어로 된 원저를 영문으로 옮겨 醫學史(의학사) 연속물 제 7권으로 1940년도에 간행 되었고 뉴욕 의학 아카데미에 의해 재판이 간행된 것은 1964년이며 미국회 도서관 카드 63-16679로

등재되어 있다. 한글로 번역된 것은 현재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 센타 정규철 소장에 의해 1990년도에 이루어졌다.

이 저서의 서문에는 “사람은 필요에 따라 일을 하게 되며 그 일에는 언제나 위해 요소를 안고 있으므로 직업인은 자기 직업의 위해 요소 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가족을 위한 일을 하므로서 때로는 중증의 직업성 질환에 빈번하게 이환 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일해 온 직업을 원망하면서 죽어 가는 사람도 있다. 이 책은 새로운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이 비록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앞으로 모든 면에서 체제를 갖추고 내용이 매우 훌륭하여 醫學史(의학사)상 중요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저서가 발간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발간 목적이다. 근로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단체와 규정이 필요하며 훌륭한 정부라면 직업인이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이것이 오늘날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근본 정신과 일치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환자를 문진할 때는 환자의 상태, 병의 원인,

질병이 시작한 때, 變通(변통), 섭취한 음식물에 대하여 물을 필요가 있다고 히포크라테스는 그의 ‘질병론’에서 기술하고 있으나 이 문진에 한 가지 덧붙여 ‘너의 직업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물어야 한다”라고 Ramazzini는 주장하고 있다.

실제에 있어서 의사가 환자의 직업을 묻는 일은 드물고, 의사는 다른 방법으로 환자의 직업을 알게 되는데 이러한 직업에 대해 아는 것이 질병을 성공적으로 치료하는데 적지 않은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어 과연 Ramazzini가 ‘산업의학의 아버지’란 것을 깨닫게 된다.

본문에 있어서의 직업성 질환은 첫째, 유해증기를 취급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질병, 둘째, 힘들고 불규칙적인 동작이나 불균형 자세로 인한 작업으로 생기는 질병, 셋째, 작동하는 기계의 고장으로 인해 초래되는 질병으로 분류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유모의 질병, 염색공의 질병, 포도주 제조공과 맥주 제조공, 광부의 질병 등에 지면을 크게 할애하고 있다.